

어머니들 평화軍縮운동 벌인다



“걸프전쟁기 軍事문화 확산막자” 모임결성

어머니들이 진포戰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군사 및 전쟁 문화 확산을 막고 나라의 통일을 앞장가기 위한 평화운동에 앞장서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주축이 되어 평화 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자녀들에게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자녀들에게 전쟁물이 잔디잔을 사주지 않자며 △이번 기초의

평화를 갈망하던 어머니도
 임(대표 金允玉)은 지난 주
 서울에서 열린 프란체스코 회
 교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살고 결별하였다.

繼도安養사의 각부간주점을 조사해보니 전생장간점이 절조전발장전보다 2, 3배가량 많이 팔리고 있으며 安養무종화교의 한화교에서는 조립스만들이시간에 53명중 50명이 최상형전투기 장난감을 구입했다고 한다 『며』 인가를 살상하는 전생부기장난감은 우리 2세의 정서나 가치관을 비틀어지게 한다』고 말했다.

또 참보육학부모회 李才也씨는 『지난달은 전기간들의 노

괴를 가져오는 전생이란 수단을 쓸수 있다는 사고를 심어줘 우리사회에 인명경시풍조를 낳을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YMCA가 초중고교생 2백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중 45.1%가 단순히 화면이 재미있어서 결과전TV뉴스를 본다고 응답했다. 이를 보고나서 무섭거나(22.4%) 불안했다(34.6%)는 아동도 1명 있었다.

美 入 金 巨 世 저 南 北 關 界 악 化 우 려
지 방 의 회 통 일 힘 쓰 는 후 보 돕 기 로

이런 불행에서 이모임
준비위원장인(金基洙씨)이 특
간정당원(金大鎭氏)에게서
전(전) 미군의 습격으로 끝났고
미국에 의한 불행이(가) 신포로
지란(이)를 계기로 우리사회
에는 양악강산의 현(현)이
가 지배하는 군사문화 정권
문화가 번져갈 우려를 높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金씨는 특히『절묘전』 이후 미국주도적인 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의 통상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해추방이론연합 具熙淑
여성위원장은 『내가 사는 京』

여성계 일각에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평화 운동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평화를 갈망하는 어머니」로
인)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인 2
월 초, 결성된 「일본전향파」 한
구단(한글)을 창간하고 어머니
모임)에 「일본전쟁전후」라는
그 이름을 새로 고친 어머니
회를 모으고 있다.

〈李英伊기자〉

우려가 높았다는 것.

우려가 높았다는 것.

우려가 높았다는 것.

우려가 높았다는 것.

△李英伊기자▽